

# 평화 순례 보고서

<준비과정부터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시간 순 느낌과 소감 쓰기>

2307 노영아

## \*준비과정

당시 체험학습 가는 날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비와 우산을 챙겼다. 긴 여행길이 될 것을 예상되어 멀미약과 개인 상비약을 챙겼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철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 \*프로그램 일정 느낌 점

### 1. 출발예정시간(7:00)

철원과 정읍의 거리가 멀어서 많은 체험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인 7시에 가는 건 좋았고 오랜만에 깨끗한 아침 공기를 마시게 돼서 다른 의미로도 좋았다.

### 2. 철원도착(11:20), 점심(11:20~12:00)

점심시간 끝날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서 점심을 예정보다 늦게 먹게 되었다. 점심으로 먹은 막국수는 처음 먹어봤는데 예상했던 국수와 다른 느낌이었다. 국수라고 해서 따뜻한 면과 육수인 줄 알았는데 시원한 냉면같은 느낌이었고 맛도 처음 먹은 것 치고는 맛있어서 점심은 만족스러웠다.

### 3. DMZ평화순례(12:00~14:30)

#### ①노동당사

노동당사 건물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서양식 건축물 느낌이 들었고 영화에서 본 곳을 직접 보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다. 비가 와서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일정이 변동되어 순서를 바꿨음.

#### 4. 평화통일강의

국경선평화학교라는 곳의 박사님이신 교장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 분이 말할 때 마다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나에게 확 와 닿았다. 영상시청도 하여 강의를 지루하게 하지 않으셨고 강의 시간이 획 하고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잘 하셨다.

#### 5. 평화전망대

북한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도 가게 되었다. 철원도 평야가 많았는데 북한(망원경으로 본)도 분계선 근처가 평야여서 이곳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인지를 알 수 있었다. 공예의 성도 보였지만 무엇보다 넓게 펼쳐진 숲과 평야가 예술이었다. 한때는 전쟁으로 처참해진 곳이지만 지금은 자연이 자리 잡아 초록빛 경치를 보여주었다. 이곳이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마음이 치유되는 풍경이었다.





## 6. 소이산평화순례

산이 가파르진 않았지만 평지가 없고 경사만 있는 소이산을 명상하는 느낌으로 소리 없이 등산하는 시간이 있었다. 대략 30분정도 걸려서 도착하는 산이었는데 체력이 부족한 건지 금방 숨이 찼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체력을 미리 길러뒀을걸... 오지 말걸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정상에서 본 경치를 보고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아름답게 펼쳐진 전경이 눈에만 담기엔 아깝다고 생각이 들게 하였고 올라오면서 힘들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뿌듯한 감정도 생겼다. 인간의 손을 타지 않고 만들어진 자연도 나름 볼만하고 통일이 되어도 이곳만큼은 이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전체적인 느낀 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버스만 왕복 10시간 타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지만 나름 볼거리도 많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게 된 것 같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된 체험 활동이었다. 부모님과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또 철원에 오게 된다면 좋은 날, 시간을 잘 분배해서 다른 볼거리도 보러 가고 싶다.